경제혁신 3개년 계획 / 대한민국 제도약의 힘, 창조경제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2016년 3월 25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3월 24일(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소비재팀 이승헌 팀장(044-203-4840), 김인곤 사무관(4841)

"제2의 소비재 수출붐" 조성을 위해

수출 마케팅 등 당면 애로 조기 해소, R&D, 전문 인력, 디자인 등 시급한 경쟁력 강화 지원대책에 정책역량 집중

◈ 수출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 현지 지사화사업 지원 예산**을 당초 계획대비 **2배 이상 확대**(전시회: 208→411억원, 지사화: 15→60억원)

◈ 한류 공연과 K-뷰티, K-패션, K-푸드 등을 연계한 **대규모 한류 박람회**를 **선양·시안·충칭**(중국, 5월), **리우**(브라질, 8월) 등에서 개최

◈ 인증, 규제, 통관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 및 **위조 상품에 대한 우리기업 대응 역량 강화**

◈ **소비재 고급화를 위한 융합형 R&D** 등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개발 상품의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투자세액 공제(바이오의약품 임상1·2상, 20%) 추진**

◈ 유망소비재 산업에 대한 **무역보험,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
(**무보** 한도 1.5배·보험료 25%할인, **수은** '18년까지 대출규모 총 3조원·중소중견 금리 0.4%p 우대, **중진공** 융자 한도 20→40억원·상환기간 연장 180→360일)

◈ **소비재 산업 융합 얼라이언스(협의체)를 출범**시켜 소비재와 IT, 디자인, 유통·물류, 문화콘텐츠 등을 결합한 **융합 프로젝트를 발굴**
(관련기업·주관부처·기관 협업, 매월 개최)

◈ 앞으로 **소비재 수출 확대** 및 **근원적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과제**를 추가로 발굴 **차기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상정**

□ 정부는 3.24(목)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함

○ 금번 대책은 한류 확산, 신흥국의 내수시장 성장, 올림픽 등 다양한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소비재 산업을 우리의 새로운 수출 효자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임**

○ 산업부는 금번 대책 마련을 위해 약 **20여차례 소비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애로사항들을 파악하였음

* 업계 애로 : ①해외 마케팅 어려움, ②복잡한 비관세장벽, ③위조상품

□ 금일 모두 발언을 통해 주형환 장관은 "가발, 신발, 봉제 등의 소비재 수출을 통해 1960년대 무역입국의 기초를 다졌듯이 **제2의 무역입국 [illegible]이 소비재 수출 붐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언급함

○ 주 장관은 "앞으로 신흥국 중심의 중산층 인구급증, 도시화 진전, 고령화 심화 등의 영향으로 **세계 소비재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 우리 소비재 산업의 브랜드와 기술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신흥국 중심의 시장확대를 국내 소비재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성장의 기회로 삼기위해,

○ 금번 대책의 방향을 소비재 기업들이 당면한 애로의 조기해소와 소비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R&D,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 앞으로 소비재 수출확대 및 소비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가 지원대책을 차기무역투자진흥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힘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3-24 14:50:04

[소비재 특성을 반영한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

1 전시회 등 지원 예산 확대 및 운영방식 개선

○ **(소비재 전시회·지사화 지원 예산 대폭 확대)** 마케팅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16년 **당초 223억원 → 471억원**으로 지원규모 대폭 확대

* 지원기업수는 '16년 당초 3,280개사 → 8,000개사로 2배 이상 확대

○ **(전시회 지원체제 개편)** 단순히 참가실적을 늘리는 양적성과보다 기업과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질적성과**에 초점

- 유력전시회*를 집중 지원하고, 집객·홍보효과가 큰 **'메인 부스'** 확보

* 쾰른 유아·아동용품전시회('16.9), 홍콩 미용전시회('16.11) 등

- 부처·지자체간 사전조율로 **'통합한국관'** 운영 확대('15, 33회→'16, 50회)

* 산업부, 농식품부, 문체부, 중기청, 방사청 및 17개 지자체 참여

- 한국 정체성을 담은 **표준디자인**(Korea BI)으로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16.4)

- 대·중소 컨소시엄의 해외전시회 **공동참여** 활성화('16, 400개사)

2 대규모 한류 마케팅을 기획하여 한국 소비재 수출붐 조성

○ **(한류박람회)** K-뷰티·푸드·패션 등 대표 한류 소비재를 통합하여, 공연·팬사인회 등과 연계된 **대규모 한류 박람회** 개최

* 중국('16.5, 선양·시안·충칭), 브라질('16.8, 리우)

< '16년 한류박람회 개최 계획 >

◇ 한류활용 확대를 위해 연예기획사 S사와 함께 한류공연, 팬사인회, 한류체험관 등을 구성하고, 수출상담회·전시회를 연계한 대규모 소비재 박람회 개최

* ① 개최횟수 확대 : ('15) 1회 → ('16) 4회 (선양, 시안, 충칭, 리우)
② K-뷰티, K-푸드, K-패션 등 대표 한류상품 전시관 운영

○ **(한류공연 연계 사업 확대)** MAMA, K-CON 등 민간 유명 콘서트와 연계한 소비재 판촉전·상담회 확대('15, 3회 → '16, 8회)

* C사(공연)와 중기청(전시·상담) 공동으로 소비재기업의 한류활용 마케팅 지원

○ **(한류스타 콜라보 확대)** 유명 소비재 기업과 연예기획사가 공동으로 한류 상품을 기획·개발 할 수 있도록 매칭 지원 확대('15, 106개사 → '16, 200개사)

* 사례 : 유통업체 E사는 엔터테인먼트 S사와 협업하여 한류스타의 이름이 들어간 엑소 손짜장, 소녀시대 팝콘, 샤이니 탄산수 등을 출시

3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 대전』 등 국내전시회 규모 격상

○ **(초대형 소비재 전시회 개최)** 글로벌 유통바이어, 국내 소비재 기업 등 총 1,500여개사가 참여하는 초대형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 대전'** 개최('16.6)

○ **(해외 바이어 유치 확대)** 주요 소비재 분야 국내전시회 개최시 바이어 발굴 및 유치비용을 지원하여, 소비재 수출 상담회 진행('16, 14회)

* 대구국제안경전('16.4), 국제뷰티엑스포('16.11), Food Week('16.11) 등

4 해외 진출 국내 대기업 유통·물류망 활용

○ **(유통업체를 전문무역상사로 추가 지정)** 성공적 해외 진출 유통업체를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하여, 소비재 수출에 활용

* 현재 해외 진출한 전체 유통업체 12개중 1개 업체만 전문무역상사로 지정, TV홈쇼핑 C사, G사 등 전문무역상사 지정 추진

○ **(무역상사 활용 확대)** 소비재 기업에게 종합·전문무역상사 이용 **바우처***를 제공하고, 종합·전문무역상사에게는 **선급금 환급보증**** 제공

* 전문무역상사 등 무역회사 20개사 내외를 선정,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활동에 소요된 비용의 70%까지 지원(지원기업 200개사, 기업당 최대 4천만원)

**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제조업체에게 선급금 지급후 해당 업체의 신용상태 악화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선급금 환급(무보, 서울보증)

- 종합·전문무역상사의 소비재 전담조직*에 유관기관(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보유한 유망 소비재 기업 정보 제공

* 종합상사 A사, B사 등에서 소비재 관련 조직 신설·운영중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3-24 14:50:04

○ **(현지 콜드체인 활용)** 중국 내륙도시 진출을 위해 냉장·냉동 물류 비용 지원(최대 80%) 사업을 신규 도입('16, 33억원)

* 공모를 통해 중국 내륙운송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운영('16.4~)

5 해외 유력 유통망 진입 지원

○ **(글로벌 파워벤더 파트너십 지원)** 대한민국 소비재대전 등 주요 전시회를 활용, 상품군별 파워벤더와 우리 소비재 기업간 파트너십 체결 지원

* 대한민국 소비재대전에 글로벌 파워벤더 500명 초청 예정
* 코트라 23개 해외무역관을 유통벤더 네트워크 구축·운영 담당조직으로 지정('16.3)

○ **(旣 구축 현지 거점 활용)** 중국 이우 생활디자인센터('15.10 개소) 등 현지거점을 활용, 현지 유통기업과의 상담회(매월) 개최 등 협력 강화

○ **(유력 글로벌몰 입점 지원)** 아마존, VIP.com 등 글로벌몰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신규 추진('16, 500개사)

* 수출 全과정(기업 입점-마케팅-물류-금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판매대행 서비스 확대)** 글로벌 온라인몰에서 판매를 대행해 주는 전문기업을 통한 판매 지원 확대('15, 1,500개사 → '16, 2,000개사)

6 역직구몰 활용 수출 지원

○ **(상품정보 번역 지원)** 역직구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정보 번역·공유 플랫폼 개발 및 중소기업의 번역비용 지원

○ **(역직구 인기상품 배송시간 단축)** 화장품 등 인기상품을 중국 현지에 미리 보관한 후 주문시 바로 배송할 수 있도록 **보세창고** 활용 지원

* 금년 중 칭다오, 정저우, 상하이, 베이징, 항저우 등 보세창고 5개소 확보운영

○ **(국내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연계)** 국내 대규모 할인행사와 연계, 해외 소비자 대상 온라인 할인행사 개최, 국제특송(EMS) 비용인하 등 지원

* 국내 역직구몰 이외에 중국 현지 유력 인터넷몰(한국관) 참여도 추진

[비관세장벽, 위조상품 문제 해소 추진]

1 중소·중견기업의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 **(해외규격인증 지원 확대)**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 지원(시험·심사·컨설팅 비용의 50~70%)을 확대('15, 1,657개사→'16, 2,100개사 내외)

- 중국 현지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인증지원센터를 확대(4→6개)하여 인증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 완화

* 인증지원센터 : (기존) 상해, 청도, 심천, 황주 → (추가) 충칭, 북경
('15) 24.6억원, 82개사 → ('16) 71억원, 280개사 내외
* CCC, CFDA, CQC 등 인증대행 및 컨설팅, 환경·위생 등에 대한 자문 등

2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의체 운영

○ **(중 국 장관급·고위급 협의체를 통한 지속적 해결 노력)** 비관세장벽 장관회의(품질감독검사검역회의) 정례화, FTA 이행위(TBT·SPS 등) 활용

- 제기된 현안 중 양국간 약정체결 등을 통한 **제도적 해결**을 우선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잠정적 해결*** 추진

* 중국측에 제안한 5개 수산물 진입절차완화 요구중 냉장갈치 우선 적용('16.3)

< 한중 통상장관회의/품질검사 장관회의('16.3) 성과 >
- 전기전자제품 시험인증 상호인정
- 삼계탕 對中 수출이 상반기 중 수출되도록 합의
- 식품·화장품 검사인정서 상호인정 확대 추진
- 최초수출 수산물의 진입절차 완화(연내 냉장갈치 대중수출 개시 우선 추진)

○ **(그 밖의 FTA 체결국 : 공동위, 이행위 등 활용)** FTA 채널(비관세작업반, TBT·SPS 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우리측 애로를 적극 제기하고 대안 협의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3-24 14:50:04

3 지식재산권 침해 사전예방 기능 강화

○ **(지재권 출원·등록 지원, 설명회 개최)** 소비재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확대*, 국내외 지재권 출원·등록 지원(기업당 50%, 최대 8건)

* 지식재산보호원, 업종단체 등 활용('15, 65회 → '16, 90회)

○ **(전문기관 컨설팅 사업 지원 확대)** 지재권 침해 우려 지역에 대해 침해가능성·회피방안 등 전문기관 컨설팅 지원 확대

* 컨설팅(기업/예산) : ('15) 348개사/68억원 → ('16) 430개사/90억원

4 위조상품 현지 조사 및 유통 차단 지원

○ **(위조품 적발 및 대응 컨설팅 지원)** 위조품 피해 현지조사를 확대하고('15, 25회 → '16, 35회), 현지 로펌 연계 등 대응 컨설팅 지원

○ **(온라인몰 위조상품 유통차단 사업 확대)** 현지 공관·IP Desk 활용, 온라인 위조품 판매게시물 적극 차단('15, 1.8만건 → '16, 3만건)

○ **(사후 소송 및 법률지원 확대)** 지재권 침해에 대한 소송보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확대('15, 149건 → '16, 300건)

5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력 강화

○ **(중국 중앙·지방정부와 협력채널 구축)** 특허청과 SAIC(중국 상표 담당부처)간 중국내 위조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력채널 구축('16.上)

- 실제 단속권한이 있는 지방정부(산동성)와도 협력채널을 구축('16.上)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강화를 요청하고, 타 지방정부와도 협력 확대 추진

○ **(지재권분야 관련 인력·정보교류 확대)** 상대국 공무원 초청 세미나·연수 확대('15, 11회 → '16, 14회), 모조품 식별방법 및 기업애로사항 공유

*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지재권 침해 가능성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 **(상대국 세관과의 협력 확대)** 특허청-관세청간 공동으로 중국산 위조상품의 해외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세관과 협력확대 추진('16.上)

[프리미엄 소비재 개발을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

1 융합 소비재에 대한 규제 특례 적용

○ **(규제 네거티브화*)** 소비재+IoT, 바이오 신약, O2O** 등 소비재 신산업 분야의 규제에 대해 **'원칙 폐지, 예외 허용'** 방식 적용

* 네거티브 규제개선 방식 : 원칙적으로 규제를 폐지하고,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16.2, 무역투자진흥회의시 발표)

** Online to Offline :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마케팅 방식(예: 매장 체험 후 온라인 주문)

- IoT 융합 패션, O2O 판매방식 등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적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차등규제*)** 식품·의약품 분야, 소비재 중소기업의 수출 등에 대한 규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차등규제 추진 검토('16.6)

* '16.3, 규제정비종합계획 : 6대 핵심분야에 대한 차등규제 적용 검토(국토·해양, 식품·의약품, 고용·인력, 환경, 소방, 수출·판로)

2 의약품 인허가 절차 개선을 통한 조기 출시 지원

○ **(식약처 전담인력 보강, 서비스 개선)** 의약품 심사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전담인력을 보강('17)

- **출시기간을 단축**하고(7→5년), 사전상담 활성화 등 심사 서비스 개선

* 국가별 의약품 허가심사 수수료 : (미국)26.5억원 (일본)3.3억원 (한국)4백만원

* 심사 전담인력 : '16, 161명 → '17, 259명

○ **(획기적 효능 의약품 특례허가)** 현존 치료법이 없는 질환 치료 의약품 등 획기적 의약품에 대해서 **특례허가** 추진('16.下)

* 가칭 "의약품 허가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3 소비재 융합 R&D 등 지원 대폭 확대

○ **(유망 소비재 대상 R&D 지원규모 확대)** 지원규모를 '20년까지 대폭 확대 추진('15, 3,160억원 → '16, 3,289억원)

* '16년 품목별 R&D 지원 : (농수산식품) 850억원, (의약품) 1,782억원 등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3-24 14:50:04

○ **(디자인-패키징 연계 개발지원 확대)** 용기, 포장 등의 고급화를 위한 패키징 R&D 지원 확대('15, 6억원 → '16, 30억원)

※ R&D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세부 확대방안 포함 구체적 규모와 지원 내용을 차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

○ **(융합형 R&D 추진)** 고부가 소비재 육성을 위해 3D 프린팅·뿌리기술·IoT·디자인 등과의 융합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R&D 추진('17)

○ **(바이오 의약품 임상 1·2상 투자 세액공제)** 바이오 신약분야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바이오 의약품 임상 1·2상 투자 세액공제** 추진('16.下)

* 바이오 의약품 임상 1·2상을 신성장동력 투자세액공제(20%)에 포함

4 유망 소비재 기업에 대한 스마트 공장 우선 지원

○ **(모델 개발)** 소비재 품목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공장 모델 개발('16.上)

* (화장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장트렌드 신속 파악·생산(fast manufacturing)
* (의약품) 품질관리·이력·유통추적 시스템(Quality by Design)
* (패션) 3D스캐너 등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대량생산 시스템(mass customization)

○ **(우선 지원)** 스마트공장 지원대상 선정시 소비재 수출기업 우선 지원

* 업종별 협회, 대기업 등을 통한 선제적 수요발굴 및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15, 95개사 → '16, 200개사 이상 지원 목표)

5 소비재 분야 인력양성 확대

○ **(유망 소비재 학부·석사과정 신설)**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과 연계하여 고급소비재(화장품 등) 학과 추가설치 등 추진

* '15년 현재 전국 12개 대학(총 698명 정원)에 화장품학과 설치
* PRIME사업을 통해 200명 이상 정원확대 수요 旣 제기('16.2)

- 화장품 현장 인력 고급화를 위해 화장품학과 석사과정도 개설('16.下)

○ **(산학 공동 실습 프로그램에 소비재 추가)** 공학교육 거점센터(서울과기대 등 6개 대학)가 운영중인 산학 공동실습 프로그램*에 **유망 소비재 추가**('16.下)

* 설계부터 생산까지의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과 실질적 시제품 고안을 동시 진행하는 교육과정

○ **(재직자교육)**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고용부)*'을 활용하여 소비재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전문교육과정 신설·운영

* 교육수요가 있는 기업 컨소시엄에 시설장비비·교육과정 운영비 등 지원

6 금융 지원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및 민간투자 활성화

○ **(무역보험 패키지 제공)**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신용보증(Nego),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 PLUS) 신규로 **패키지 일괄 제공**

- 소비재 분야에 대해 **단기수출보험 한도 우대(1.5배)** 및 **보험료 추가할인(25%)**도 시행

'15년 중소·중견 소비재 관련 단기 수출보험 인수실적은 2조 3,388억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지원 확대)** 유망 소비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확대하고(20→40억원), 상환기간도 연장(180→360일)

○ **(수출입은행 유망 소비재 특별 대출 확대)** 대출 규모를 연차적으로 늘려 '18년까지 총 3조원으로 대폭 확대('16, 0.5조원→'17, 1조원→'18, 1.5조원), 금리도 (중소·중견)최대 0.4%p 우대

- 별도로 총 10억불 규모의 M&A 지원자금을 통해, 우리 소비재 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인수 지원(금리 0.2%p 인하, 소요금액의 90%까지 지원)

7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혁신제품 수출지원

○ **(마케팅 지원)** 혁신센터*에서 발굴한 아이디어 상품이 수출로 연계되도록 대규모 전시회·상품전·무역사절단** 등에 우선 참여

* 대구(패션·의류), 부산(수산가공품), 충북(바이오·뷰티)
** 한류박람회('16.5, 선양·충칭·시안), 무역사절단('16.5, 中 청두/톈진) 등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3-24 14:50:04

○ **(로드쇼)** 창조경제 글로벌 로드쇼를 개최('16, 2회)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유치 및 제품 홍보 지원

* 미국 LA('16.7, K-CON 연계), 중국('16.下)

○ **(수출컨설팅)**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보육기업과 전담 PM을 1:1로 매칭하여 수출전략 수립 및 바이어발굴 등 밀착 컨설팅('16, 100개사)

8 산업부, 코트라의 소비재 수출 지원 기능 강화

○ **(산업부)** 소비재 수출활성화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課단위) 신설

○ **(코트라)** 유통전자상거래 전담조직(室단위)을 신설하고 중국 내륙, 베트남, 이란 등 유망 소비재 시장으로 해외무역관 인력 재배치('16.上)

9 소비재 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출범

○ **(추진방향)** 소비재와 IT, 디자인, 콘텐츠, 가상현실, 엔터테인먼트, 유통·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전문가들이 모여 융합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육성

- 도출된 분야별 핵심 프로젝트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R&D, 세제, 금융, 지재권 등을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

○ **(운영)** 관련기업* 및 유관부처**·기관들이 모여, 융합 프로젝트 발굴 및 종합지원 방안 등 논의(매월)

* 소비재기업, 유통, 전자상거래,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홍보 등 다양한 분야 기업 참여

** 산업부, 기재부, 미래부, 농식품부,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참여

별첨 1. 제2차 민관 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요

별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모두발언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보도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소비재팀 김인곤 사무관(☎ 044-203-48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제2차 민관 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요

□ **일 시** : '16. 3. 24일(목) 13:00~14:40

□ **장 소**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內)

□ **참 석**

○ **(정부위원)** 산업부장관(위원장), 기재·문체·농식품·복지·해수부 차관, 중기청장, 특허청장, 식약처 차장, 관세청 차장

○ **(업계)** 화장품, 농수산식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 의약품 기업 8곳

○ **(민간위원·지원기관)**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KOTRA,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aT, 콘텐츠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 **논의 안건 : 소비재 수출활성화 대책**(관계부처 합동)

□ **진행순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3:00~13:05	(5′)	▪ 모두 말씀	산업부장관
13:05~13:15	(10′)	▪ 안건 발표	무역국장
13:15~14:35	(80′)	▪ 토의	참석자
14:35~14:40	(5′)	▪ 맺음 말씀	산업부장관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3-24 14:50:04

참고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모두발언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이곳까지 와주신
정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1박 2일간 카라반 일정을 함께 해 주고 계신
중기청장님, 수출지원기관장님들, 금융기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참석해주신 소비재 기업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재 수출 현황

요즘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인공(송중기)이 드라마 속에서 즐겨 먹던 식품(정관장)은
면세점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의 대표적 인기 화장품인 에어쿠션은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국에 오면 반드시 사야 할
'필수구매 상품'으로 입소문이 나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 속의 친근한 제품들이
앞으로 우리 수출을 이끌어갈 소비재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올해 1~2월 수출이 두 자리수로 감소하는
녹록치 않은 수출여건 속에서,
올 2월까지 화장품은 전년 동기보다 14.6%, 의약품은 8.2%나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국은 올해부터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면서,
매년 4~6백만명의 신생아들이 더 태어난다고 합니다.

중국의 스마트맘들은 비싸더라도 안전한 유아용품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중국시장의 4분의 1만 공략하여도,
우리는 매년 1백만 개의 젖병과 유모차,
1백만 통의 분유를 더 수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중산층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영유아용품 수출이 늘 것으로 전망
됩니다.

하지만, 긍정적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 소비재는 브랜드, 기술력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모자라며
수출 비중도 전체 수출의 약 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 소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960년대 무역입국(貿易立國)의 기초를
가발, 봉제, 신발 등의 소비재 수출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70년대부터는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무역의 기초를 다진 효자상품이 소비재였습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3-24 14:50:04

제2의 무역입국 시대를 열면서
제2의 소비재 수출 붐을 일으키고자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비재 수출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소비재 수출활성화 대책의 골자는
그동안 소비재 기업인들로부터 수렴한
당면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저는 장관 취임 바로 다음날인 1월 14일
소비재기업(보령메디앙스)을 방문하였고,
저를 포함하여 실무자들이
약 20여 차례에 걸쳐 관련 소비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소비재는 그 품목이 다양한 만큼,
기업별 특성이나 처한 환경, 애로들도 정말 다양하였습니다.

기업들이 수출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제기한
당면 애로사항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①첫째,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돈도, 역량도, 관련 전문인력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②둘째, 다양하고 복잡한 인증, 허가, 등록 등의 부담과
수출 대상국가들의 각종 규제와 통관상 애로와 같은 비관세장벽,
③마지막으로 이른바 '짝퉁' 제품의 유통에 따른 이미지 훼손과 시장
잠식의 문제였습니다.

금번 대책은
이처럼 기업이 당면한 수출 애로사항들을 조기에 해소하고,
아울러 소비재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연구개발·디자인 역량 지원, 인력 양성 등과 같은 기능별 지원시책을
우선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전시회 참가지원 예산을 당초보다 2배 이상 확대하여,
우리 소비재 수출기업들의 유망전시회 참여기회를 대폭 늘리고,
보다 넓고 좋은 위치의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마케팅 기회를 크게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류공연과 K-뷰티, K-패션, K-푸드를 연계한
[illegible] 박람회를
중국 선양, 시안, 충칭 (5월),
[illegible] 데 자네이루 (8월) 등지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한류 소비재 붐을 조성하려 합니다.

나아가
우리 한류 스타들이 보증하는
손짜장(엑소 손짜장),
음료(샤이니 탄산수) 사례처럼
한류를 비롯한 우리 문화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우리 상품에 대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와 상품 수출을 연계하는 관련 사업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3-24 14:50:04

다음으로,
비관세장벽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상대국과 이 문제를 논의할 장관급 회담과 FTA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반드시 해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문제 해소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설화수의 짝퉁인 설연수,
아모레퍼시픽의 짝퉁인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위조품들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허청과 우리 대사관, IP Desk 등을 통해
수출 상대국 정부기관과
위조품을 적극적으로 적발, 유통을 차단하는 문제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피해 소송에 따른 법률지원도 확대함으로써,
짝퉁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외에도,
혁신적인 제품의 출시를 막는 규제의 개선에서부터,
글로벌 명품 소비재 개발과 상품화를 위하여
R&D, 디자인, 인력, 금융에 이르기까지
소비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성공의 비결은 목적을 향해 시종일관하는 것이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소설가인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한 말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중국으로 삼계탕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성과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순방에 이어, 오랜기간 동안 끊임없이 협의하고
설득하여 이끌어낼 수 있었던 성과였습니다.
정부와 지원기관의 역할은
이러한 목표를 향해 '시종일관'하는 것이라 봅니다.

정부는
소비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차기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효과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소비재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함께
손잡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3-24 14:50:04